

서점에 진출한 '듣고 보는 책'들

다양한 아이템 선보여... 본격적 '오디오·비디오북'시대 예고

우리의 출판에도 제3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읽는 책'의 시대로부터 '듣고, 보는 책'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뉴미디어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출판물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오디오북' 또는 '비디오북'의 개념이 우리에게도 익숙해지고 있다.

어린이 문예물에서 성인물까지 다양

오디오북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카세트 테이프. 중고생들의 학습용 어학카세트를 제외하면 어린이물이 그 수나 종류의 다양함에 있어서 단연 우세하다. 이미 계몽사나 금성출판사 등 대형 아동도서출판사들은 명작동화, 전래동화, 성경이야기 등을 담은 카세트를 책과 함께 세트화해서 기본 구색으로 갖추놓은 지 오래다. 가격부담이 큰 이들 전집물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내용을 그때그때 구입할 수 있는 단행물 형식도 아동용 카세트책으로 인기있는 종목의 하나. 그림책 2권과 카세트 1개를 비닐가방에 담은 형식 (3600~4500원)이 붐을 이루면서 아이큐박스·예림당·윤진·태서 등 10여개 출판사들이 각기 개성있는 소재들을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카세트만으로 된 오디오북은 지경사의 「명작동화시리즈」, 범우사의 「이슈이야기」, 꿈나무의 「이야기로 듣는 동화」, 한림출판사의 「창작그림동화」 등 30여종에 이르는데, 대개 1500원선에서 판매된다. 이들 출판사에서 내는 아동용 오디오북이 소재가 다채롭고 내용이 풍부하다면, 음반회사들이 내는 카세트책은 입체음향 등 제작기술면에서 더욱 정교하다. 아세아 레코드의 「할아버지 옛날이야기」, 현대음반의 「이슈이야기」, 예음사의 「세계위인전」 등 10여종의 카세트책 20여종이 2400원 균일가로 판매되고 있다.

아동용 오디오북은 아직 글을 읽지 못하는 취학전 어린이들에게 생생한 이야기로 상상력을 북돋워준다는 점에서 부모들이 반기는 상품이기도 하다. 교보문고에서 다섯살난 아들의 카세트책을 고르던 박정애씨는 "되풀이해서 책읽기도 힘들고 엄마보다 더 재미있게 이야기해줄기 때문에" 자주 사게 된다며, "심한 장난으로 고장이 잦아서 수명이 짧은 것이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단조롭게 인쇄된 책보다 학습효과가 높고 지식전달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수험용 오디오북은 나름대로 확고한 자리군함을 하고 있

뉴미디어의 출현에 따라

'오디오북'은 어린이물에서 문예물, 수험용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비디오북' 역시 현대인의 취향에 맞는 아이템들을 선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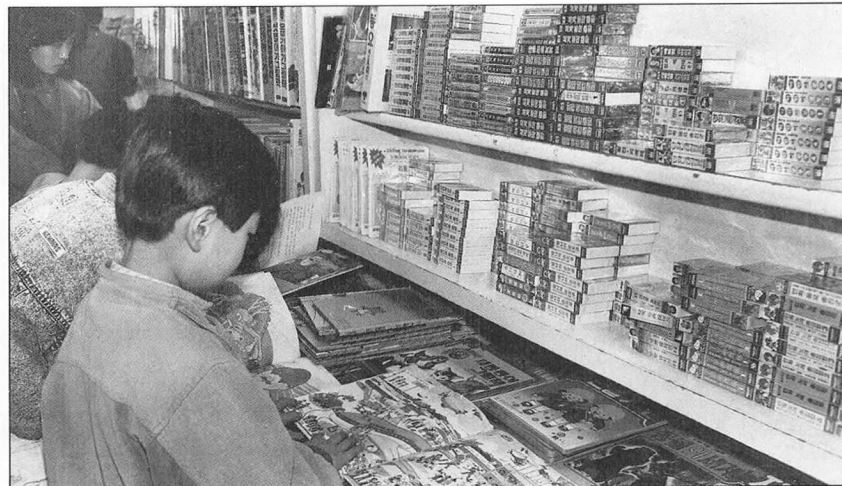
이제 오디오·비디오북이 미래출판의 각광받는 매체로 자리를 굳힐 날도 멀지 않은 듯하다.

다. 운전면허시험 절차안내와 법규요점을 담은 「카세트 운전면허」(동신출판사)는 바쁜 현대인들을 겨냥, 틈나는 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세트책의 장점을 내세우며 연간 5천부의 꾸준한 판매실적을 보인다. 「카세트 사무관승진강좌」시리즈(법정학회)와 「7·5급 특·승진 수험대책」시리즈(상지사)역시 한국사·헌법·행정법·형법·형사소송법·경제학 등 교수진들의 강의내용을 담은 수험용 오디오북. 학원에 갈 수 없는 수험생들과 시간에 쫓기는 현직 실무자들이 출퇴근시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교수들의 핵심강의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그러나 법정학회의 기획실장 김양일씨는 "법규가 바뀐다거나 시의성을 타는 내용인 경우, 책보다 신속하게 개정하지 못하는 제작구조상의 취약점이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출판사측에선 무거운 제작비부담 때문에 아이템이 있어도 상품화하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PC시대를 대비한 디스켓 수험정보교환시스템에도 관심을 보이는 등 현대인의 생리에 맞는 뉴미디어출판에 적극 뛰어든 자세를 보이고 있다.

본격적 '문예 오디오북'도 등장

오디오북의 '붐'조짐은 일반교양물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도서출판 마당은 라디오 드라마였던 「광복20년」을 수년전에 카세트책(318개)으로 낸데 이어 고전필독서라는 「삼국지」를 해설서 3권, 카세트 30개로 묶어 내놓았다. 직장인·직업군인과 노인층의 반응이 꾸준하며, 의외로 해외교민들의 인기를 얻어 2천 세트를 수출하기도 했다.

울초 동방클럽에서 낸 김동길교수의 강연집 「하늘을 우러러」는 본격적인 오디오북임을 선언하며 등장, 국내 출판계의 화제에 올



새로운 출판매체인 '오디오북'·'비디오북'이 서서히 서점가에 진출, 뉴미디어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랐다. 저명인사들의 명강연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녹음·제작, 「인생의 좌표시리즈」로 낼 계획인데, 앞으로 「살며 배우며 사랑하며」(안병욱), 「중국고전에서 배우는 생활의 지혜」(정현우), 「마음의 발견」(유호문)을 계속해서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 계몽사에서 준비중인 「카세트 문학시리즈」가 상반기에 발매되면, 국내 오디오북 붐에 본격적인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소설(19개)과 한국소설(19개) 그리고 국내의 명시(각각 1개)를 포함해서 모두 30개의 카세트책이 만들어지면, 국내에서는 오디오소설전집의 첫테이프를 끊는 셈이 된다. 명작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나 병상의 환자, 그리고 자동차문화발달에 따른 폭넓은 시장층을 흡수할 수 있어 출판사측에서도 사뭇 기대가 크다.

오디오북의 새로운 시도들은 몇가지 시행착오가 예상되기도 한다. 도서출판 마당의 편집부장 오재욱씨는 "대본을 극화시킴으로써 원작을 손상할 우려가 있어 저작권자와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실지 제작여건들이 까다로우며, 과세대상인 카세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가격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등의 문제점을 꼽으면서, 한편으로 "시행착오를 하나씩 극복하여 더욱 고품질의 오디오북이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잔잔한 음악을 깔면서 인기성우와 DJ들의 음성으로 낭송되는 카세트시집 또한 감수성 예민한 여성취향의 문예오디오북. 음반회사들은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홀로서기」(서정윤), 「접시꽃 당신」(도종환) 등을 재빠르게 카세트시집으로 내놓았으며, 서정적이 고 낭만성 짙은 국내의 시들을 엮은 것만도 20종이 넘는다. 이밖에 「명심보감」(지구레코

드), 「동서양의 명언」(아세아레코드) 등 독특한 내용의 오디오해설집도 눈에 띈다.

비디오북은 아직 시험단계

비디오북은 아직 조심스레 독자들의 감점점을 두드리는 단계에 와 있다. 벨엘프프로그램에서 나온 「인쇄문화의 발달사」, 「국토지리시리즈」, 「독의 유래」, 「유치원 학습자료」는 새롭게 개발한 오디오북의 가능성을 진단해주는 모델케이스. 한국미디어에서 나온 학습백과 성격의 「비디오 가정교사」(전18권)와 함께 국내 비디오북출판의 신호탄인 셈이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3만원대의 고가여서 대중의 시선이 섣뜻 모아지지 않고 있다.

이밖에 기업체의 홍보용 비디오 사보가 등장하는가 하면 몇몇 출판사에선 스포츠·요리 분야의 비디오북 시장성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디오북은 제작비용과 기술면에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나, 인쇄에서 포착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상과 생생한 음향을 담을 수 있어 미래출판의 획기적 매체가 될 것이 틀림없으리라 예상된다.

원우현교수(고려대)는 "산업사회 후기로 접어들면서 개인의 취향은 더욱 세분되어, 기존매체로는 정보욕구를 흡수할 수 없게 되었다. 뉴미디어출현에 따라 개발된 오디오·비디오북이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이들 매체의 유통구조 및 아이템개발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뒤늦게 일기 시작한 출판매체 혁명의 물결은 과연 거대한 파도로 변화할 것인지. 고유한 의미의 '책'과 더불어 오디오·비디오북이 어엿한 출판물로 우리 앞에 자리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김지원 기자